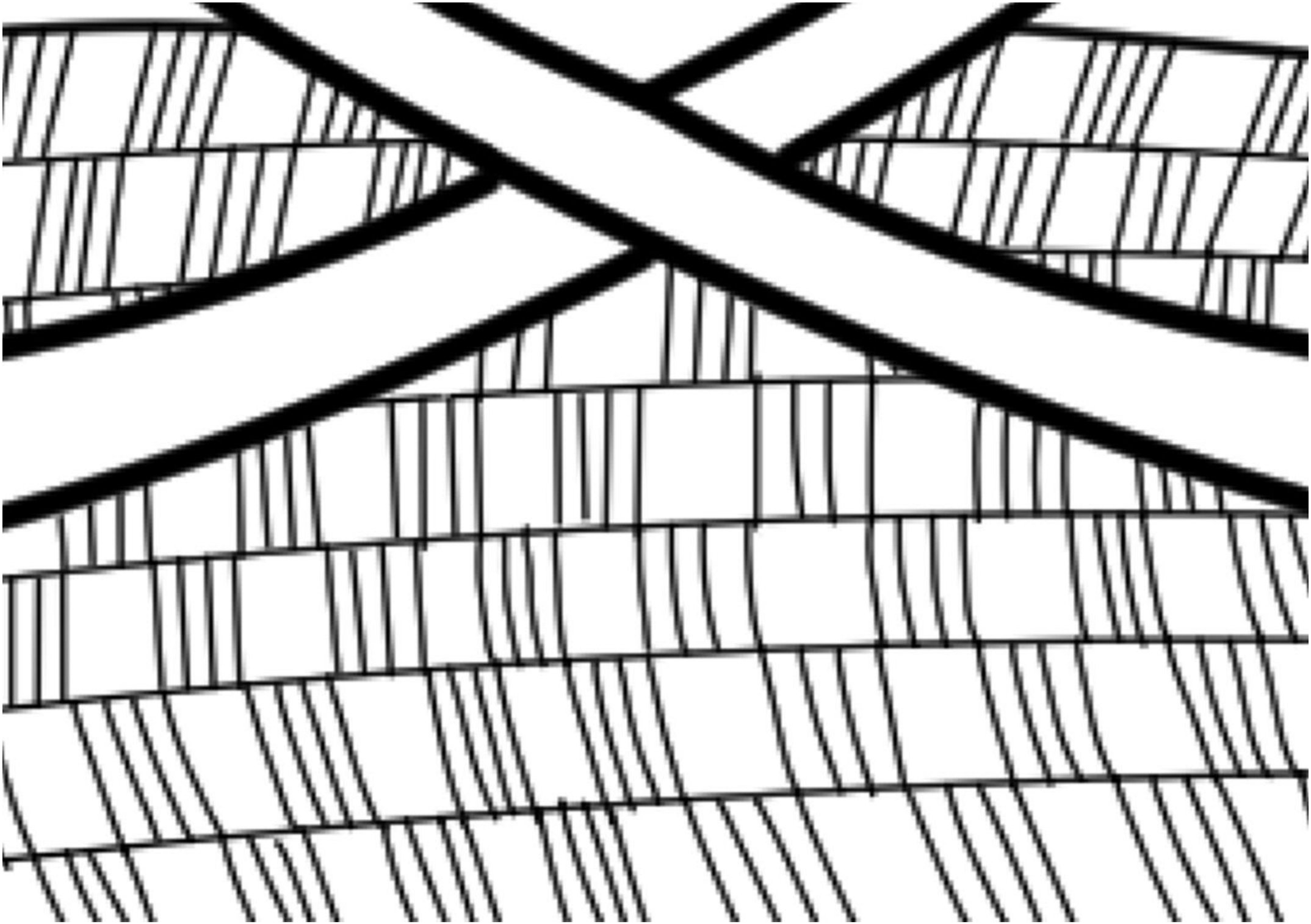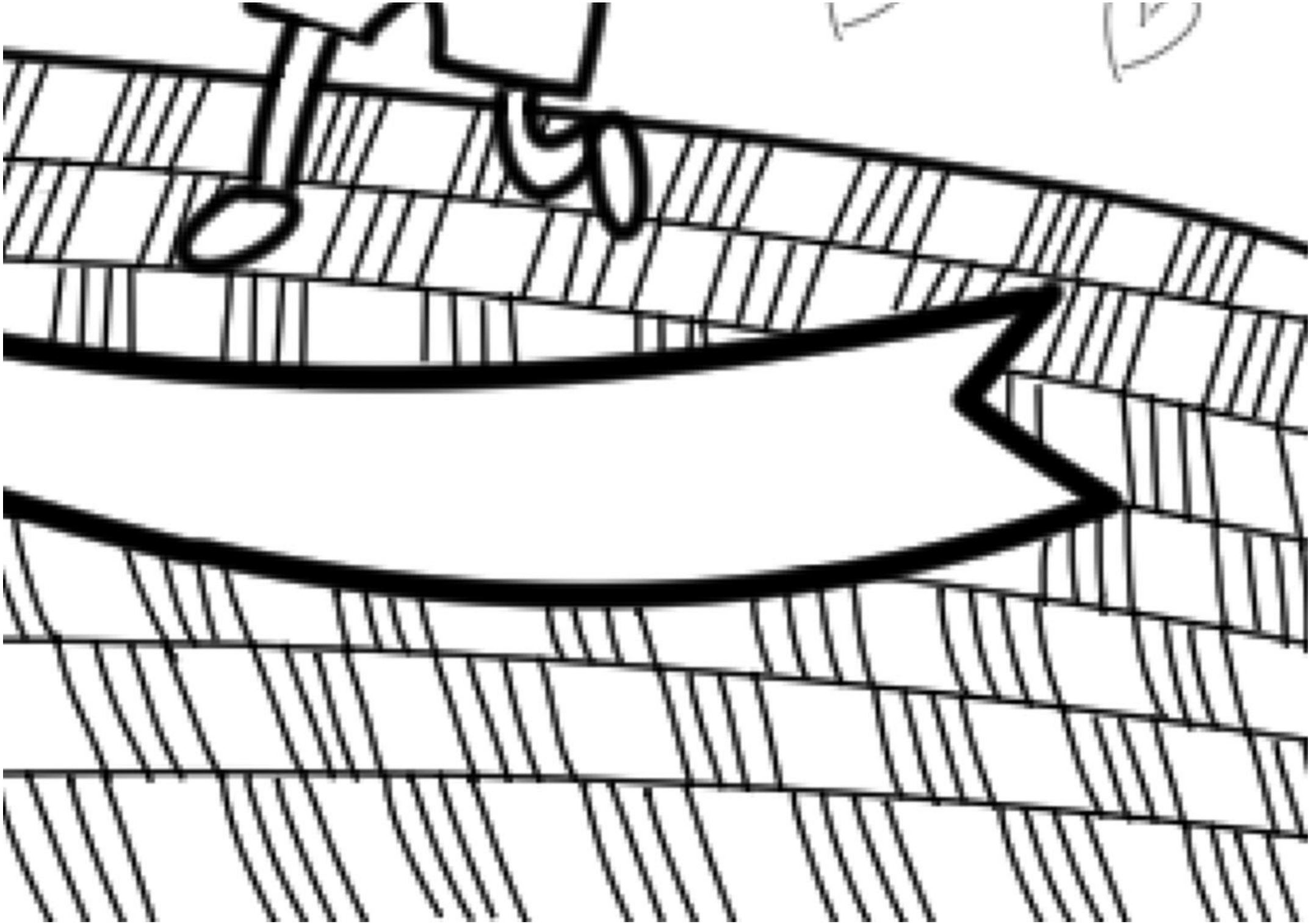친구야
사랑해